

전북 여성사 발간 중장기 계획 수립

전북여성가족재단, 연구 결과 통해 내년 '전북여성농민의 삶과 기록' 발간

전북여성가족재단(전정희 원장)은 지난 21일 여성사 발간위원회 최종 회의를 갖고 여성정책연구소 기본과제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발간 중장기 계획(2026~2030)수립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여성사 발간위원회는 지역여성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학, 여성학, 역사학자 및 현장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전북여성사 발간 중요도와 시급성을 3차에 걸쳐 조사해 연구 타당도와 합의를 높였다. 전북여성사위원회와 구분된 별도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전북여성사 주제, 추진방향, 사업과제 등을 조사해 분석했다.

그 결과 2026년부터 발간될 최우선 영역은 '여성농민'이 선정됐다. 한국사 관련 주제로 '동학농민혁명과 여성'이 제시됐다. 역사 서술



전북여성가족재단은 지난 21일 여성사 발간위원회 최종 회의를 갖고 여성정책연구소 기본과제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발간 중장기 계획(2026~2030)수립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방식은 주제를 중심으로 구술사, 생애사, 통사 혼합이 전문가들의 높은 합의를 얻었다. 연구시기는 1945년 이후 현대로 합의됐다. 향후

여성농민 주제 이후에는 여성노동, 여성운동, 여성문화 순서로 전북여성사 발간 작업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드라마 촬영지 기반 전주형 체류관광 첫 선

전주 드라마 촬영명소 · 미식 · 전통문화 결합 시범 관광프로그램 운영

전주관광재단이 드라마 촬영지 기반의 체험형 관광프로그램을 두 차례에 걸쳐 선보인다.

이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전주의 실제 공간에 드라마 서사를 입힌 '전주형 체류관광 모델'의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획됐다.

재단은 1차(11월 21~22일), 2차(11월 28~29일) 두 차례에 걸쳐 사전 모집한 인플루언서 60명을 선정해 캠퍼 형식의 시범 운영을 진행한다. 참가자 만족도, 체험 선호도, 콘텐츠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향후 상품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핵심 프로그램인 전주한옥마을 드라마 '갯마을'은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널리 알려진 전통 아이템 '갯'을 활용한 도보 투어다. 참가자들은 오방색 갯을 착용하고 한복대여소, 승광재, 경기전, 전통성당, 풍납문 등 드라마 촬영지와 역사·문화자원을 함께 탐방한다. 전주 연극인이 해설자로 참여한다.

또한 전주 촬영 인기 드라마 명소를 투어 코스로 선정해 해설과 미션 게임을 결합한 체험



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드라마 팬·MZ세대가 몰입할 수 있는 콘텐츠의 적합성을 실험한다.

한편 전주관광재단은 이번 시범사업 종료 후 △콘텐츠 만족도 △운영 난이도 △사진·영상 활용성 △지역경제 연계성 등을 분석해 2026년 전주형 체류관광 콘텐츠로의 정식 런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은성 기자

제1회 부안 상감 도자작품 대학생 공모전 시상식 · 전시

부안군은 지난 21일 부안점치박물관에서 제1회 부안 상감 도자작품 대학생 공모전 시상식 및 수상작품 기획전시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나라 고려상감의 본고장인 부안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대학생 도예·공예 전공자들에게 창의적 작품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국 17개 대학에서 총 121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독창성·기술성·상감기법의 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30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시상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 지역 문화예술 관계자,

교수·학생,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사기장, 부안도예가협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하고 상감 도자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나눴다.

수상작품 기획전시는 시상식 직후 개막해 관람객들에게 첫선을 보였으며 전시 기간은 오는 2026년 3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이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공모전은 한국 전통 상감기법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미래 도예 인재들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예 문화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부안을 대표적인 도자문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청년기획자 프로젝트 실연회 개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오는 29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청년기획자 프로젝트 실연회 '청년과 청년 사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실연회에는 전주 지역의 청년기획자 2개 팀이 참여해 서로 다른 기획 주제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두 팀은 청년의 시선과 해석을 바탕으로 팔복예술공장에서의 새로운 경험과 상상력을 제안한다.

첫 번째 참여팀인 '플래닝 프로젝트'는 '리버시블 팩토리'를 통해 팔복예술공장의 장소성을 기억·시간·감각의 전환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내며, 두 번째 팀 '내향인 마을'은 내향적 성향에 집중한 동명의 프로젝트 '내향인 마을'을 선보인다. /정은성 기자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2부 '굿패와 무당' (17)

나하고 혼인 안 할거야?

- 오 상 근 (본보 경제부장) -

명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명희는 남준의 팔에서 빠져나오려고 몸을 뒤흔들었다.

"너무 답답해……."

남준의 뒤통에서도 명희와 똑같은 물리 화학 반응이 일었는지 스스로 팔을 풀고는 눈을 알른 다른 데로 보냈다.

"오늘 굿했던 혼들 말아야, 참 안 되었어?"

"그러게, 너무 안 되었어."

"우리 얼마나 좋아, 히히히."

남준은 명희의 눈치를 살피며 장난기 어린 얼굴로 웃었다. 왜 그러냐는 눈으로 명희가 남준을 바라봤다.

"우리는 부모님이 적극 찬성했으면 했지 반대는 안 하실 거잖아, 안 그래? 히히히."

"뭐?"

명희는 모르는 척 남준을 뻔히 쳐다봤다.

"뭐긴 뭐야, 우리 혼인하는 거 말하는 거지. 히히히."

"뭐여? 누가 너하고 혼인한데? 흥!"

명희는 새침한 눈으로 남준을 흘려본 뒤 얼른 고개를 돌려버렸다.

"너는 나하고 혼인 안 할 거야?"

남준은 알른 양순으로 명희의 팔을 잡고 명희의 시선을 잡아챘었다.

"아이, 왜 이래? 대답하게……."

남준은 명희를 다시 꼭 끌어안았다. 명희는 가만히 남준의 품에 안겼다.

다음날 학교가 끝나고 남준과 명희는 전날 곳을 했던 마을로 갔다.

어제 낚던지기 굿과 처녀 총각의 씻김굿을 마쳤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망자혼인굿을 진행하여 굿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남준과 명희는 부모님들을 거들어 무구와 악기들을 집까지 날렸다.

"남준이 명희도 나이만 차면 얼른 혼인을 시켜야겠지?"

술길 바위에 잠시 앉아 땀을 식히면서 박규환이 강병도를 돌아보며 말했다.

"답연히 그래야지."

강병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다. 아버지들의 말을 듣고 있던 남준과 명희는 얼굴이 벌게졌다.

"어머, 애네들 얼굴 빨게지는 거 봐요, 호호호."

연기대이 재미있다는 듯 남준과 명희를 돌아보며 웃었다.

"그래도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하네, 호호호."

신동태도 장난기 어린 웃음을 웃으며 남준과 명희를 바라봤다.



다음날 남준은 학교에 갔다가 복도에 네 명의 아이들과 마주쳤다. 남준과 같은 마을인 봉림에 사는 강정근과 강민석, 박명희가 사는 황전에 사는 박주성과 박창수였다.

국민학생 때와는 달리 아이들은 남준을 앞잡아보는 추세는 아니었으며 당골래 자식이라 놀리는 아이도 없었다.

"남준아, 너 우리 동네가 얼마나 양반 동네인지 알고 있지?"

네 명 중 강정근이 남준을 발견하고는 응원군을 만났다는 듯 말을 걸어왔다. 남준은 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 멍한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봤다.

"우리 동네는 말이지, 예부터 양반이 살았던 동네라고. 벼슬도 많이 하고 말이야. 지금도 그렇잖아. 면서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경찰관도 있고 또 군인도 계시고, 우리 삼촌도 군에 계시는 공무원이잖아, 안 그러냐?"

강정근이 남준과 다른 세 명을 번가라 쳐다보며 우쭐한 표정으로 말했다.

"맞아, 맞아. 봉림은 말이야 원래 양반동네라고. 황전 바라. 운통 농사꾼뿐이잖아." 옆에 있던 강민석도 말을 보탰다. 강민석도 남준과는 먼 친척별 된다. 박창수와 박주성은 풀이 죽어서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우리 삼촌이 봉림에는 일제에 부역하는 친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 민족정신이 썩은 동네라고 했어!"

박창수는 눈을 부라리며 강정근에게 일갈했다. 강정근은 박창수의 눈을 피했다. 강정근의 삼촌 강용대는 실제로 일본 군대에 입대하여 복무한 적이 있었다.

"요즘 그 동네에서 좌익이다 뭐다해서 말들이 많다면서? 여수에서 반란을 일으킨 군인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

강민석이 아니꼬운 듯 박창수를 힐끔 쳐다보며 말했다. 박창수의 삼촌 박대우는 남로당 무장 책임자다.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안 그래……."

박주성이 겁먹은 얼굴로 좌중을 살피며 말했다.

"우리 삼촌이 머지않아 좌익이 온 세상을 차지하는 날이 온다고 했어!"

박창수는 뭐가 화가 났는지 붉어진 얼굴로 강정근과 강민석을 바라보며 일갈했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